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3. 10. 14

2014 충남 GRDP 전망 (저성장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요 약

CONTENTS

< 요 약 >

1. 2014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2. 2014년 대전충남의 경제전망
3. 충남의 GRDP 추세
4. 충남의 GRDP 실증전망
5. 요약 및 결론

- 충남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2007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3.4%)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2007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9.5%)을 지속해 왔던 지역임
- 그러나 충남은 2011년 GRDP 성장률이 5.1%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2.5%까지 낮아져, 충남 또한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임
- 2013년 충남도 GRDP 집계나 끝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도 이와 같은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
- 실증분석을 통한 예측결과 충남은 2014년 3.8%의 성장이 예상되나 6%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상존
- 이에 충남은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성장기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
- 주지하다시피 저성장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거대 경제국인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충남이 역량을 모아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와 같은 저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

2014 충남 GRDP 전망 (저성장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요 약

- 충남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2007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3.4%)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2007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9.5%)을 지속해 왔던 지역임
- 그러나 충남은 2011년 GRDP 성장률이 5.1%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2.5%까지 낮아져, 충남 또한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임
- 2013년 충남도 GRDP 집계나 끝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도 이와 같은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
- 실증분석을 통한 예측결과 충남은 2014년 3.8%의 성장이 예상되나 6%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상존
- 이에 충남은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
- 주지하다시피 저성장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거대 경제국인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충남이 역량을 모아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와 같은 저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

2014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

※ 본 절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경제전망’을 요약 및 재편집하여음

<2014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항목		경제전망
경제성장	실질 GDP	연간 3.9% 성장
	민간소비	연간 3.3% 증가
	설비투자	연간 6.2% 증가
	건설투자	연간 2.0% 증가
고용	취업자	45만명 증가
물가	소비자물가	연간 2.3% 상승
통상	수출(통관)	연간 6.4% 증가
	수입(통관)	연간 9.0% 증가
	경상수지	490억달러 흑자

1) 경제성장

■ 실질 GDP 연간 3.9% 성장예상

-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성장률(IMF, 3.6%)을 상회하는 3.9% 성장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성장에 기여
- 수출은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년보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될 전망

■ 민간소비는 연간 3.3% 증가 예상

-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고용증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양호한 소득여건 지속 예상
- 소비심리는 양호하나, 전월세 및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양호한 소비심리, 실질구매력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13년 (1.9%)에 비해 개선된 3.3%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연간 6.2% 증가 예상

-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개선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점차 개선
-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발전부문도 2013년에 이어 투자가 지속될 전망
-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확대, 정책효과 가시화 등으로 2013년(△1.6%)에 비해 개선된 6.2%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연간 2.0% 증가 예상

- 주택수주 감소, 입주물량 확대, 공공·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개선세가 둔화될 가능성
-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청사이전 지속 등으로 증가 예상
- 비주거용 건설이 증가하겠으나 주택·토목건설이 부진하여 2013년 (7.0%)에 비해 낮아진 연간 2.0% 증가 예상

2) 고용 및 물가

▣ 취업자 45만명 증가 예상

- 경기 개선,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등으로 최근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2014년 취업자는 2013년(38만명)에 비해 확대된 45만명 증가 예상

▣ 소비자물가는 연간 2.3% 상승 예상

-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상승압력이 나타나겠으나,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 유지
- 전반적으로 2013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되나, 공업제품 가격 등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3) 통상

▣ 통관기준 수출은 연간 6.4% 증가, 수입은 연간 9.0% 증가 예상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13년(2.5%)에 비해 개선된 6.4% 증가 전망
-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13년($\Delta 0.3\%$)에 비해 개선된 9.0% 증가 전망

▣ 경상수지는 연간 490억달러 흑자 예상

- 상품수지의 경우 유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높은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 유지(450억불)
- 상품외 수지의 경우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상품외수지 흑자폭 둔화 예상(40억불)

2014년 대전충남의 경제전망 ◀

※ 본 절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보도자료‘2014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을 요약 및 재편집하여음

<2014년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

항목	경제전망
민간소비	완만한 증가
설비투자	제한적 증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상품수출	증가폭 확대

1) 민간소비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확대, 취업자수 증가, 복지예산 증액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민간소비 증가율은 낮은 소비성향 등으로 전국 수준(+3.4%)을 크게 웃돌기는 어려울 전망

2) 설비투자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의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반의 유희설비,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완료 등으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전망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설비투자 증가율은 역내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전망, 전국보다 위축된 투자심리 등을 감안할 때 전국(5.8%)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전망

3) 건설투자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부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은 지자체 SOC 예산 큰 폭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산업단지 건설 확대, 대형 발전시설 신규 착공 등으로 주거용보다 양호한 증가세 예상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건설투자는 최근 5년간의 추세, 비주거용 건물·토목의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전국(1.6%)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4) 상품수출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상품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상품수출은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전국(7.2%)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 이상과 같은 수요부문별 전망을 감안해 볼 때 2014년중 대전충남지역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성장률은 수요부문별 전망, 민간소비의 성장기여 정도, 수출의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국 수준을 상회할 전망

충남의 GRDP 추세 ◀

<표 1> 충남의 GRDP 증가율

(단위: 백만원)

연도	충남의 GRDP	전년대비 증가율
1997	27,776,147	7.9
1998	25,383,265	-8.6
1999	28,839,225	13.6
2000	30,963,282	7.4
2001	31,816,724	2.8
2002	34,185,883	7.4
2003	38,783,631	13.4
2004	43,327,332	11.7
2005	47,497,309	9.6
2006	53,505,262	12.6
2007	57,563,405	7.6
2008	61,568,588	7.0
2009	67,054,755	8.9
2010	75,606,540	12.8
2011	79,456,262	5.1
2012	81,460,26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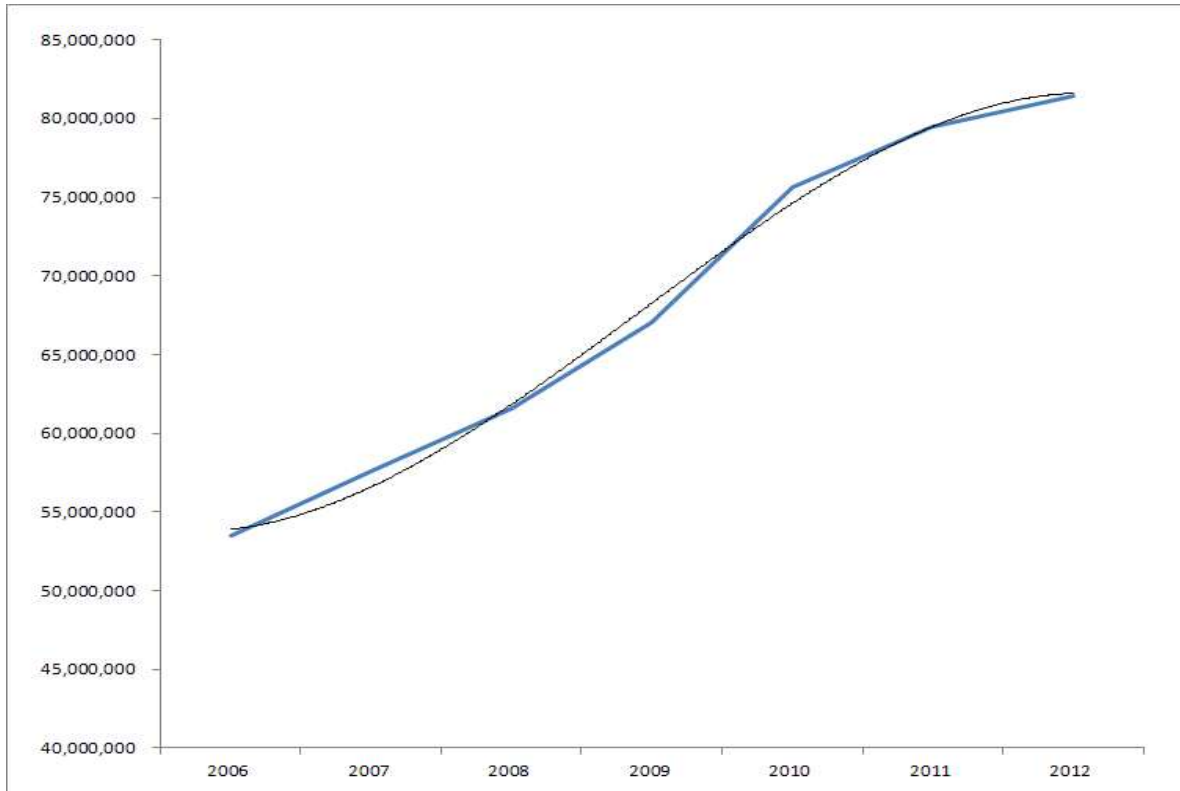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국부) - 지역계정 - 지역소득 (2005년 기준)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충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음
- 2001년 2.8% 성장을 저점으로 하여 2003년에는 13.4%, 2007년에는 12.6%, 2010년 12.8%의 고성장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0.1%의 성장을 하였음

- 그러나 2011년에는 5.1%로 성장률이 낮아졌고, 2012년에는 2.5% 성장에 그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임

[그림 1] 충남의 GRDP 추세

(단위: 백만원)



- 성장추세만을 놓고 살펴보면 충남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저성장기로 접어든 것으로 여겨짐
- 16개 시도의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충남의 2012년 성장률은 제주, 울산, 전남에 이어 4위의 성적으로 나쁘진 않으나, 과거의 성장률에 비하면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임

<표 2> 시도별 GRDP 비교

(단위: 백만원)

시도별	2011	2012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순위
전국	1,105,864,941	1,126,743,542	1.9	—
서울특별시	247,003,197	251,922,998	2.0	7
부산광역시	55,896,926	56,975,515	1.9	8
대구광역시	33,124,736	33,889,093	2.3	6
인천광역시	53,159,961	54,021,383	1.6	11
광주광역시	23,072,617	23,236,516	0.7	15
대전광역시	23,500,613	24,047,686	2.3	5
울산광역시	49,503,112	51,405,087	3.8	2
경기도	241,536,997	245,859,528	1.8	10
강원도	27,345,739	27,711,238	1.3	12
충청북도	34,887,760	35,513,179	1.8	9
충청남도	79,456,262	81,460,260	2.5	4
전라북도	31,351,329	31,425,713	0.2	16
전라남도	51,719,467	53,038,851	2.6	3
경상북도	69,494,378	70,205,807	1.0	13
경상남도	75,284,674	75,973,338	0.9	14
제주도	9,527,173	10,057,350	5.6	1

자료: 통계청(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국부) - 지역계정 - 지역소득 (2005년 기준)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그동안 충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었으나 이와 같은 추세로 살펴 볼 때, 그동안의 성장에 안위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충남도는 이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며, 향후 10년간 충남을 견인할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런 의미에서 2014년은 충남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도의 정책을 재정립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충남의 GRDP 실증전망 ◀

1) 분석방법

▣ 충남의 GRDP 예측은 ARIMAX(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tra)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예측모형은 크게 경제모형과 시계열 예측모형으로 구분

- 경제모형은 경제변수에 수치를 주어 정량화하고 변수 간에 관계를 설정한 후 경기예측모형을 만들어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은 불안정적인 시계열을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회복시킨 후, 자기변수의 과거값으로 회귀식을 구성하는 AR과정과 모형추정 잔차의 이동평균 함수형태로 표현되는 MA과정의 결합함수로 추정해 내는 방법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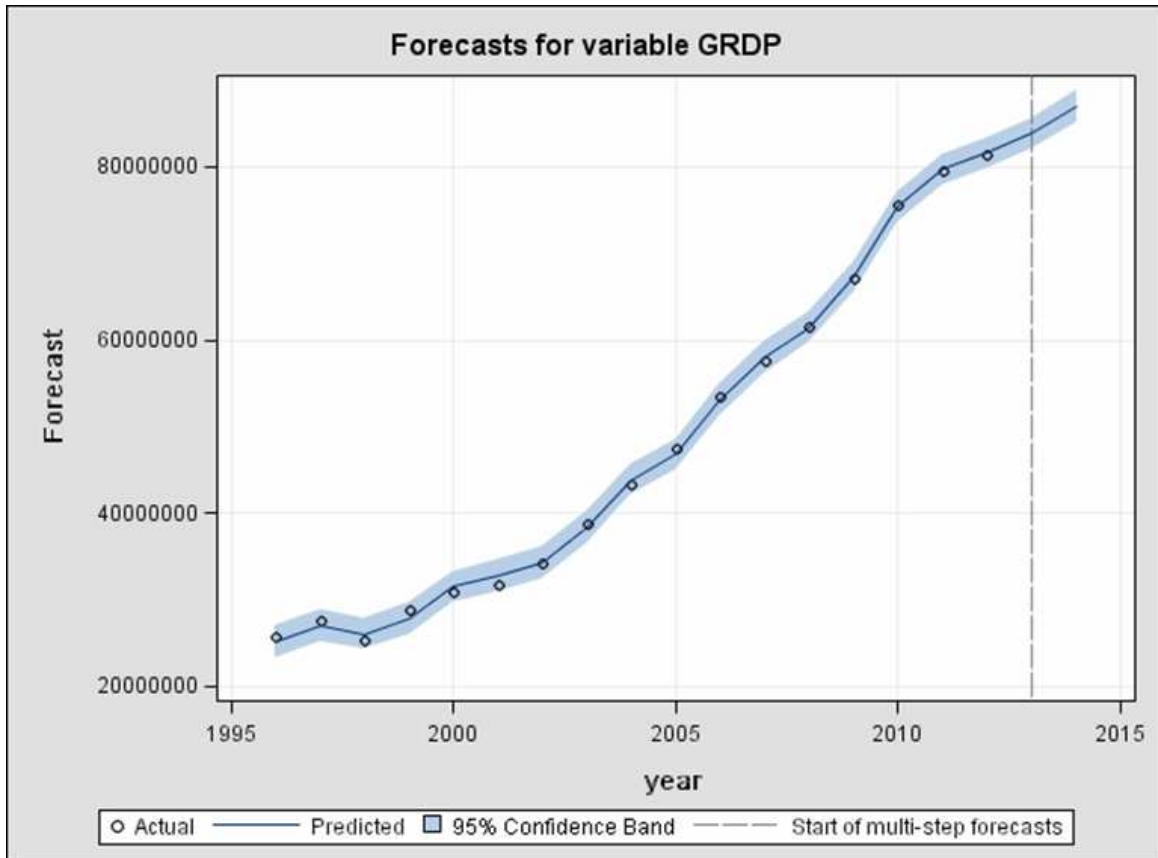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경제변수를 감안하여 ARIMA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ARIMAX 모형을 통해 미래추세를 파악

● 충남도 GRDP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순수출, 소비자물가,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였음

2) 분석결과

<표 2> 충남도 GRDP 예측

(단위: 백만원)



- 아직 2013년 충남도 GRDP가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아 미래예측을 통해 2014년의 충남의 성장률을 예측하였음
- 추세 예측결과 충남은 2014년에는 3.8%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과거 충남의 성장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성장 전망이며, 국가성장 전망과 비슷한 수치임
- 다만 95% 신뢰구간 하에서 살펴보면 충남은 6.0%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여하에 따라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지속해 왔던 지역임
- 그러나 충남은 2011년 GRDP 성장률이 5.1%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2.5%까지 낮아져, 충남 또한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2013년 충남도 GRDP 집계나 끝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도 이와 같은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2014년 3.8%의 성장이 예상되나 6%까지 성장할 가능성도 상존
- 이제 충남도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저성장기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임
- 저성장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
- 아울러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충남이 역량을 모아 경제성장 회복노력을 한다면 이와 같은 저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